

미국 음악교육론 교재에 나타난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in American Compendiums for College Students

주 대 창*

Dae Chang Ju

초록 본 연구는 영어권의 음악교육론 교재에서 음악교육철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북미권의 대표적 세 문헌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비평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은 하나의 논술 형태로 상징적 경험을 포괄하는 미적 교육을 학교 음악교육의 당위성 옹호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음악교육의 기초』는 관념론, 경험론, 실용주의와 같은 일반적 철학의 논제들을 음악교육 현장에 접목시켜 소개하면서도 미학적 기초들은 음악교육철학과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현대 음악교육』은 미국 음악교육의 역사와 연계하여 공리적 관점, 미적 철학, 그리고 실천적 철학이 대두되었음을 소개한다. 하지만 세 교재 모두 음악교육 자체의 철학을 내세우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그나마 철학적 견지를 전체의 논의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문헌은 첫째 것이다.

주제어: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론, 미국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근거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compare philosophical foundations in representative university textbooks written in English and highlight their characteristics. Upon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relevant chapters,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insists on adhering to aesthetic education, including symbolic experience to advocate school music education. In contrast,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introduces conventional argumentation such as rationalism, empiricism, and pragmatism, illustrating how to apply them to music education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hilosophical topics in American music education. However, only the first one asserts a philosophical frame for a coherent explanation across the whole book board.

Key words: music education philosophy,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foundation of music education, school mu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dcju@gnue.ac.kr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Korea

I. 들어가며

음악교육을 전공하고자 할 때 만나는 일차적 질문은 음악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일 것이다. 이것은 음악교과교육, 즉 공공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자 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음악교사교육의 커리큘럼에는, 음악교수법이나 실기 또는 실기지도법 등의 과목과 아울러, 음악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조망하는 과목으로서 음악교육론이 들어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음악교육의 원론적 사항을 다루는 음악교육론 교재는 일반적으로 음악교육의 큰 그림에서 시작한다. 즉, 사변적 기초에서 시작하여 구체적 내용 조직 및 교수법적 원리에 대한 안내 등으로 나아간다. 이 틀은 음악교육 활동의 전체 모습을 제시하는 음악교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소위 총론적 사항이 각론적 사항 앞에 위치한다. 이것은 논리적 명분을 통하여 의미를 확보하려는 인간의 가치인식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어떤 사항에 대한 공공의 의미를 계속 진화시켜 나가려면 보편적 정당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음악교육의 근원적 질문에 직면하여 그 보편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 분야를 음악교육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분야에서 다루는 사항이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간 가치를 논하는 철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음악교육 역시 인간의 가치체계에 편승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음악교육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조명은 최근에 불거진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음악을 전설한 지배층 양성의 수단으로 내세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 republic, 376e)이나, 음악이 군자(君子)로서의 품성을 완성시킨다는 고대 중국의 공자(『논어』, 泰伯 8) 등은, 비록 오늘날과 다른 시각의 목적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음악교육을 이미 그들의 철학적 구도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음악교육의 관계를 따져보는 접근은 음악이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질 때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것은 공공교육의 일환으로 음악교과가 일반화한 경향과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선진 산업국들은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다 민주적이며 인권적인 사회공동체 건설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사회 발전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고, 공공 음악교육의 위상 정립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음악교육은 이전의 바람직한 품성 고양과 공동체 의식 제고의 전통을 이어받음은 물론이며, 나아가 자유 존중 및 다원주의 관점에서 자아감 형성이나 문화적 권리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교육적 역할을 확대하여 왔다. 이렇게 음악교육과 연계된 가치의 범위가 넓고 깊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

성 또한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문 분야로서 음악교육철학은 20세기 중반까지 가시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악교육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당시 하나의 신조어였으며, 이 용어를 사용한 논의가 초기에 북미권에 국한하여 나타났다(Henry, 1958; Ju, 2013, p. 307). 상대적으로 견고한 음악교과교육 체제를 확보한 독일어권에서도 음악교육철학이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까지 일반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음악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음악교육의 근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Abel-Struth, 1985, p. 25, 79).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목적 탐구가 음악교육철학의 핵심 주제인 것으로 보고, 음악교육을 안내하는 대학교육 수준의 전공 문헌에 이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음악교육철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대개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것의 소개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학의 음악교육 입문자에게는 음악교육의 전반적 사항을 접할 때 우선 만나는 철학적 근거가 이후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의 일차적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적인 후세대 교육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음악교육 입문자가 흔히 접하게 되는 대표적 문헌에 나타난 핵심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조망해봄으로써 미래의 음악교육철학에 시사하는 바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철학이라는 용어의 일반화를 이끌어온 미국 음악교육계의 주요 음악교육론 교재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려고 하는데,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1972), 『음악교육의 기초』(*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1995), 『현대 음악교육』(*Contemporary Music Education*, 2014)이 그 문헌들이다.

영어권에서 음악교육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과정에서 이 저서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학생들이 이 세 권의 안내서를 모두 접하면 좋겠지만, 강의자 및 소속 대학의 여건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들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상호비교를 통한 조망이 필요한 이유이다.

II. 현상적 고려

1. 관련 연구의 고찰

함희주(Ham, 1993)는 음악교육학이 “음악학의 한 분야 또는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음악교육학을 “음악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모든 전제조건·작용·영향·목적·가능성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Ham, 1993, p. 140). 음악교육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음악학이나 교육학 이외에도 철학, 미학, 심리학, 예술학, 역사학, 사회학 등을 동시에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그는 음악교육학이 복합성을 지닌 연구 분야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 가운데 철학이 관여되는 요소는 음악교육의 이유, 즉 음악이 ‘왜’ 전달되어야 하는지이며, 이것은 곧 음악교육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다(Ham, 1993, p. 143). 즉, 음악교육학의 구조적 이해에서 철학적 근거를 필수적 사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연경(Lee, 1993)은 “뚜렷한 목표의식, 가치관, 교육철학적 사고 없이 올바른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듯이” 무엇보다도 음악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Lee, 1993, p. 279). 그는 리머(B. Reimer)의 견해를 전하면서 “음악교육에 대한 신념과 중요성에 확고한 토대를 제공해 줄 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Lee, 1993, p. 279). 이어지는 논의에서 그는 머셀(J. Mursell), 랭거(S. K. Langer), 마이어(L. B. Meyer), 슈바드론(A. Schwadron), 레오나드(C. Leonhard)를 언급하고 있으며, 음악교과의 본질적 의미를 미학적 관점에서 관련주의, 절대형식주의, 표현주의로 나눠 소개하였다. 아울러 심미적 경험의 특성과 그것의 지도방법까지 다룸으로써 이 부분이 음악교육의 중요한 축임을 내세웠다.

김미숙(Kim, 2001)은 음악교육학자들의 연구 주제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Yarbrough의 견해에 따라 철학적 질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Kim, 2001, p. 32-33). 그리고 고찰대상 논문집의 연구 영역을 분류함에 있어서 “철학적 개념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웠다(Kim, 2001, p. 37). 또한 음악교육의 연구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철학적 연구방법”을 포함시켰다(Kim, 2001, p. 45).

성경희(Sung, 2002)는 21세기 사회에서의 새로운 음악교육 패러다임을 상정하면서 특히 음악교육의 철학적 사고와 실천적 가치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Sung, 2002, p. 4). 아울러 음악의 가치와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탐구가 철학적 기반에 따라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용희(Kim, 2002)는 음악교육학의 현대적 동향을 고찰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음악교육이 일면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나 헤르바르트(J. F. Herbart)의 자연주의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 철학은 전혀 배척하여 아동 개인의 복지보다는 정신적 훈련-제국주의적 사상의 주입-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였다(Kim, 2002, p. 8). 또한 음악교육학이 다른 학문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학문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예로 음악학, 교육학, 심리학, 철학 등을 언급하고 있다(Kim, 2002, p. 25). 이는 전체 음악교육학의 구조 설정에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석문주(Suk, 2004)는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폈는데, 국제적 연구 성과물을 보면 초창기에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학, 음악학습이론,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음악교육 연구의 범위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전하였다(Suk, 2004, p. 93). 그리고 음악교육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는 틀에 음악교육철학을 포함시켰다(Suk, 2004, p. 98). 연구대상 국제학술지 4종에 나타난 음악교육철학의 평균 점유율은 7.6%이며 음악교육역사(5.3%), 음악교육평가(5.7%)보다 높다(Suk, 2004, p. 122). 이는 연구 성과물의 관점에서도 음악교육의 전체 구조에서 음악교육철학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경훈(Min, 2009)은 독일 및 미국의 음악교육 연구 분야를 살피면서 철학적 기초를 언급하였다. 그는 음악교육의 연구 방법론에도 철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리머의 철학을 예시로 소개하였다(Min, 2009, p. 14-15, 21).

이상을 종합하면 음악교육의 전체 열개에 음악교육철학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의 음악교육활동에서도 필수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음악교사 및 음악교육학자를 염두에 둔 교재로서의 음악교육론에는 당연히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 음악교육론 외에 음악교육연구 방법론 등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나 연구의 초점 강화를 위하여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다른 언어권의 음악교육 소개 문헌에서도 음악교육의 철학적 바탕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영어권 교재의 현황 파악에 집중하려고 하므로 독일어권 등 다른 지역의 음악교육론 문헌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2. 문헌의 구조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인 세 문헌은 모두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가지고 있다.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은 책 전체를 3부로 나누고 있다. 제1부 도입, 제2부 기초들, 제3부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 아래에 순서대로 2개, 3개, 6개의 장이 설정되어 있다. 음악교육철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2부의 둘째장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들’(philosophy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진다. 『음악교육의 기초』는 부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사항은 제2장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들’(Philosophical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에서 설명된다. 『현대 음악교육』은 전체 4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 현대음악교육의 사회적, 인지적 기초들, 제2부 음악교육과정, 제3부 음악교육을 위한 지속적 관심 영역들, 제4부 피날레가 그것들

이다. 각 부는 순서대로 4개, 2개, 2개, 2개의 장으로 나뉜다. 음악교육철학은 제1부 셋째 장 ‘현 시대의 지적 경향들’(intellectual currents of the contemporary era)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들 문헌은 음악교육철학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음악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역사에 대한 언급은 배치 순서에서 모두 음악교육철학을 다루는 부분의 앞에 놓인다. 이것은 역사와 철학을 묶어 음악교육을 조망해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역사가 현실적 위치를, 철학이 논리적 위상을 말해준다고 보면, 이러한 배열은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사회 발달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보려는 과업이 음악교육론 교재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음악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음악교육론 교재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또 하나의 고찰 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으려고 한다. 다만, 고찰대상 문헌의 구조를 볼 때 음악교육론 교재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음악교육철학이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음에서는 음악교육철학의 소개에 대하여 각 문헌이 취하는 서술 방식과 그 주요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우선 각 교재가 내세우는 음악교육철학의 요지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요 방향’의 기준에서 점검을 시작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문헌의 서술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접근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곧 ‘서술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당 음악교육론 교재가 어떤 기조의 음악교육을 내세우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문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여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철학적 근거의 내용

1.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

1) 주요 방향

(1) 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

이 교재는 음악의 긍정적 가치에 주목하고 음악교육의 고유한 역할을 내세우기 위하여 음악교육을 ‘미적 교육’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Leonhard & Hause, 1972, p. 114). 미적 교육은 참된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해주고, 시대를 넘어서는 삶의 가치를 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본다. 거기에는 듀

이(J. Dewey)의 미적 경험에 대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모든 예술 경험은 일상적 경험의 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적 경험 역시 미적 경험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핵심적 요소로 리듬을 내세운다. 이 문헌의 저자가 내세우는 듀이의 관점에 따르면 미적 경험의 기초가 리듬이며, 그 전체 리듬 동력이 감성적으로 바뀐다(Dewey, 1934, p. 14; Leonhard & Hause, 1972, p. 89-90). 그래서 이 관점은 음악을 인간 삶의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보게 한다(Leonhard & Hause, 1972, p. 94). 다시 말하면, 미적 잠재력은 삶의 구성요소로서 신체적, 인지적, 도덕적 잠재력과 더불어 인간의 참된 모습(true stature)을 가능하게 한다(Leonhard & Hause, 1972, p. 114).

(2) 상징적 경험(Symbolic Experience)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경험의 상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된다. 이것은 랭거(S. K. Langer)의 견해를 차용한 것으로서, 인간 자체가 궁극적으로 상징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상징화를 이루는 미적 경험은 삶에 긍정적인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Langer, 1945; Leonhard & Hause, 1972, p. 92). 따라서 상징화를 매개로 일상적 경험 역시 미적인 면을 지니기 마련이다. 일상적 삶이 환경에 대처하는 실재적(practical) 경험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intellectual) 경험에 주로 노출되는데, 감성적(emotional) 경험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총합체로 묶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미적 경험으로서의 음악 활동이 상징성에 더 잘 부합함을 주장한다.

때로 예술이 일상적 삶과 분리되어 고유한 활동 영역에 머무는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런데 모든 경험이 상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미적 경험은 관념적 영역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징화 과정은 인간의 모든 경험에 녹아들기 마련이므로 미적 경험 역시 일상적 경험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징화를 듀이가 말하는 리듬과 연결시키면, 삶의 과정에 존재하는 리듬적 성격이 대상에서 상징화되고, 인간은 그 상징을 지각하면서 경험의 승화를 지향하게 된다. 즉, 음악은 상징이라는 형식에 더 밀접하게 위치한다. 이 구도에서 보면 음악은 느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은 증상에 따라 나타나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삶(inner life)에 있는 느낌의 이미지화(imagination)를 통한 상징적 표현인 셈이다(Langer, 1945, p. 28; Leonhard & Hause, 1972, p. 96). 이 문헌에서는 이렇게 듀이와 랭거가 결합되면서 음악교육의 과업이 상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2) 접근 방법

(1) 서술 특징

이 문헌은 논의 전개에서 음악교육철학이라는 용어를 피하지 않으나 해당 장의 제목으로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들”(philosophy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전체 구조는 논의 필요성, 핵심적 사상, 그것의 활용, 그리고 음악교과의 위상으로 이루어진다. 논의의 결론으로 음악교육자들이 각자의 음악교육철학을 지녀야 함을 내세운다. 그런데 그 실체의 소개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적 교육과 상징주의를 활용한다. 위의 두 줄기를 하위 장의 구별된 제목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서술 전체가 그것들을 요지로 하여 하나의 논문처럼 전개된다.

우선 도입에서 음악교육철학이 추구하는 바를 “왜 음악을 가르치는가?”(Why teach music?)로 설정한다(Leonhard & Hause, 1972, p. 84). 다시 말하면 음악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모두 ‘왜’에 근거한다고 본다. 이후의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음악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든 음악교육활동의 실체는 그것을 수행하는 교사의 철학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건실한(sound) 철학은 음악교육자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Leonhard & Hause, 1972, pp. 85-86). 눈에 띄는 것은 그러한 노력이 공리적(utilitarian) 관점 때문에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후순위에 놓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미국의 현실이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학교 음악교육이 필수교과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과,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관심이 유독 미국에서 일찍 두드러진 점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어서 음악교육철학의 형성에 대하여 다루는데, 언급하였듯이 듀이의 경험주의를 전면에 놓는다. 이 부분은 ‘음악교육철학의 형성’과 ‘경험의 형식’으로 나눠 설명된다.

이 문헌은 음악교육철학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에 해당하는 하위 장들의 명칭은 “음악에 대한 반응”(responses to music), “음악에서의 가치판단”(making value judgments on music)이며, 전반적으로 예술작품으로서의 음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음악 자체의 고유성과 추상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내세운다. 그러므로 위대한 음악작품의 변형적 사용에 부정적이나,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는 열린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음악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는데, 음악교육은 다른 교육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닌다고 역설한다.

(2) 시사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교재는 음악교육철학의 단순 소개가 아닌 논술의 형태를 취한다. 서술의 흐름으로 보면 설득력의 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음악교육론 교재에서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갖게 하는 수준의 설명에서는 객관적 서술자의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문헌은 단행본 형태의 음악교육철학처럼 앞뒤의 맥락을 연결시켜 꼼꼼한 논리적 구조로 견해를 펼친다. 이 방식은 이 교재의 이후 부분에서 그러한 철학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여러 가지 견해를 병렬의 형태로 또는 역사적 순서로 나열하면서 각자 필요한대로 사용하라는 방식에 비하면 독자들의 노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특정 관점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린 관점에서 음악교육철학을 수용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당시의 관점에서 최근의 철학적 경향, 특히 그 사회에서 회자하는 논의들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설파한 듀이의 예술철학이나, 무용 미학자로서 예술의 상징성에 주목한 랭거의 견해를 미국의 학교 음악교육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미국 철학계의 논의가 현실에 바로 투영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다만, 그것이 학교 음악교육이라는 매우 제한적 사항에 잘 들어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듀이나 랭거 모두 교과로서의 예술교육보다 예술 그 자체에 대한 논제로 자신들의 철학을 선보였다. 그것은 음악의 넓은 스펙트럼을 수용하여야 하는 미국 특유의 음악교육 상황에 잘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 교재의 저자가 시인하고 있듯이 미국 학교 음악교육은 메이슨(L. Mason) 이래 음악의 외재적 가치에 집중하여 왔다(Leonhard & Hause, 1972, p. 111). 그러나 이 문헌에서 강조하는 교육적 음악은 예술성이 있는 작품에 국한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 교재는 학교 음악교육의 당위성 확보에 음악교육철학 소개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모든 논의가 학교 음악교육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책 전체 구성에서 소위 이론적 기초의 제시로 보이는 “음악교육의 기초들”(3~5장)과, 그것의 실제적 구현 방안의 제시로 보이는 “음악교육의 원리들”(6~11장)이 나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뒷부분의 원리들이 앞부분의 기초, 특히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미적 교육을 예술적 관점의 음악교육으로 연결시킴에 따라 학교 음악교육의 소재가 제한된다. 비록 음악교육철학 소개의 말미에 문화적 부분의 수용을 언급하고(Leonhard & Hause, 1972, p. 108), 나아가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음악과 실험적 현대 예술음악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나(Leonhard & Hause, 1972, p. 110), 위대한 음악 작품의 대중적 변형에 반대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음악 및 실용음악이나 다른 문화권의 음악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주의에 해당하는 표제음악 계열을 열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Leonhard & Hause, 1972, p. 106). 이것은 원래의 미적 교육이나 상징주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교재 저자의 주관적 음악교과관이 스며든 결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상징주의나, 무엇보다 미적 교육은 음악적 소재에 제한을 두고 제기된 것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미적 교육은 계몽주의적 관념론에 근거한 둔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 칸트(I. Kant), 헤겔(G. W. F. Hegel) 등의 사상과, 그리고 용어 면에서는 실러(F. Schiller)의 미적 교육(ästhetische Erziehung)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두이 견해 역시 그러한 사조와 별개의 줄기라고 보기 어렵다. 음악교육을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모두 미적 인식의 승화적 가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2. 『음악교육의 기초』

1) 주요 방향

(1) 합리론(Rationalism)

참된 지식이 존재하고 그것을 학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소개한다. 이러한 계열의 철학가들로 플라톤(Plato), 데카르트(R. Descartes), 칸트(I. Kant), 헤겔(G. Hegel) 등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이 어떻게 합리론과 얽혀있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합리론이라는 대표 용어를 선택했는지도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인간의 의식적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설명하는데, 철학 분야 쪽에서 주로 관념론(idealism)으로 불리는 계열이다. 합리론과 관념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헌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나아가 현상학(phenomenology)까지 그 계열의 한 형태로 본다.

(2) 경험론(Empiricism)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적 입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한다. 그가 관념의 궁극적 실재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이 문헌에서는 경험론을 현실주의(realism)와 유사한 것으로 본 듯하다. 이 계열에 스피노자(B. Spinoza), 로크(J. Locke), 제임스(W. James) 등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홉스(T. Hobbes), 루소(J.-J. Rousseau), 스펜서(H. Spencer) 등도 포함시킨다. 역시, 이러한 사상가들의 철학이 어떻게 경험론으로 압축되는지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 루소의 자연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자연적 방식을 내세우며, 자연적 세계의 궁극적 실재성이 자연적 방식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실용주의(Pragmatism)

모든 것은 변하며 아무것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사고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와 궤변가(sophist)들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그 입장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후 사상가들이 실용주의로 발전시켰다고 본다. 이를테면 베이컨(F. Bacon), 콩트(A. Comte) 등을 거쳐 퍼스(C. S. Peirce)가 정립시켰다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어떤 사고가 유의미하려면 그것을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러한 작업이 곧 의미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논리나 권위가 우선시되지는 않는다. 듀이로 이어지는 이 갈래에서는 가설의 검증이 진리탐구의 최상책으로 나타난다.

2) 접근 방법

(1) 서술 특징

이 문헌은 음악교육자들이 교육활동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주요 갈래로서 선별한 철학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음악교육 활동에 응용해보기를 권한다. 해당 장의 제목은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philosophy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이지만, 그것이 음악교육 자체의 것인지, 또는 그것이 어떤 관련성으로 음악교육 분야의 논의에 들어오는지 가 명확하지 않다. 음악교육의(of) 철학적 기초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음악교육을 '위해(for)', 또는 '고려한(considering)' 사고 유형의 예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철학 분야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거론되던 주요 관점들 중 음악교육에 참고해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관점의 주요 철학자들을 언급하여 그 계보성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상황은 철학 분야의 선행 학습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잡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아가 각 철학자들의 사상에 배어있는 섬세한 차이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면서 각자의 고유한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점도 눈에 띈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에서 음악교육 자체의 목적 내지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은 이 분야의 정립이 아직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 교재는 음악교육의 미학적 기초를 철학적 기초와 분리하여 별도의 후속 장으로

다룬다. 일반적으로 미학이 철학의 한 분과로 여겨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각 장의 역할 분담이 궁금해진다. 해당 장의 서술을 보면, 미학적 기초가 실제로 음악의 이해 및 활용 방향과 더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음악의 다층적 모습과 그것의 활용을 견인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이를테면 거시에서는 좋은 음악이 무엇이라는 질적 기준을 다루며 음악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음악교육의 음악적, 미학적 기초’(the musical and aesthetic foundation of music)라는 장이 내용적으로는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의 설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2) 시사점

전반적으로 보면 이 문헌에서 여러 철학적 관점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독보적인 면이 있다. 각 관점을 구별 짓기 위하여 음악교육활동의 여러 유형을 층위에 따라 예시한 부분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접근이지만, 음악교육 현장에 현실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유형들로 압축하는 일이 실제에서 일반화의 오류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음악교육의 방법적인 면에까지 철학적 관점을 연계시킴으로써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사실, 방법적인 면은 철학적 관점이 다르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상적 방법과 원리적 관점을 도식적으로 묶을 수는 없는 일이다.

종합해 보면, 어찌되었든 이러한 구성의 음악교육 교재는 철학적 사고가 음악교육 현장의 문제해결 방편으로 활용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물론 음악교육 자체의 철학을 숙성시켜 제시하지 못하고 철학 분야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이 교재가 보여주듯이 현장의 음악교육 활동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는 없으며, 다양한 시도가 이 분야에 대한 사고를 자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현대 음악교육』

1) 주요 방향

(1) 음악교육의 공리적 관점(A Utilitarian View of Music Education)

음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건전한 사회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음악교육의 의의는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고 한다. 역사적 바탕을 언급하는 서두에서 그 대표적 예로 플라톤과 아

리스트텔레스를 든다. 공리적 관점을 내세우는 하위 장에서 공공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육이 미국 대륙에 나타난 것도 같은 취지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1838년 보스턴 교육위원회에 음악교과의 개설을 청원한 메이슨(L. Mason)의 요지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즉, 음악이 지닌 미적 영향력도 학생들의 사회화 기능의 발달 등 공리적 이익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2) 공리적 믿음에서 미적 철학으로의 전환(The Shift a Utilitarian Belief to an Aesthetic Philosophy)

이 교재는 미국에서의 20세기 중엽을 공리적 입장의 음악교육철학이 퇴조하고 음악의 미적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으나 레오나드(C. Leonhard)의 연구물을 인용하면서 음악의 도구적 가치를 넘어선 음악교육의 방향을 이야기한다(Mark & Madura, 2014, p. 48). 이어서 1970년의 리머(B. Reimer) 문헌을 인용하여 음악교육이 철학적 관점에서 그 본질과 가치를 논할 때 미적 측면을 우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을 제시함에 있어서 『음악교육에서의 기본 개념들』(*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1958)과 레오나드의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초판, 1959), 나아가 리머의 『음악교육철학』(1970)을 언급한다. 리머의 미적 교육에 대한 견해는 듀이, 랭거, 마이어(L. Meyer) 등의 사고를 잇는다고 소개한다(Mark & Madura, 2014, p. 50).

(3) 실천적 철학의 대두(The Emergence of a Praxial Philosophy)

이 문헌은 1990년대에 음악교육철학의 새로운 경향이 돋보이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 대표적 예로 엘리엇(D. Elliot)의 『뮤직 매터즈. 음악교육의 새 철학』(*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을 든다. 저자는 엘리엇의 관점이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에 회의를 표명한다고 전하면서, 음악은 인간의 행위이지 미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이 관점은 엘리엇에 앞서 스몰(C. Small)이 음악 또는 음악하기(musicking)를 명사가 아닌, 하나의 동사로 본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소개한다. 즉, 음악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결합체라는 것이다(Small, 1977, p. 8; Mark & Madura, 2014, p. 52). 나아가 보우만(W. Bowman)이 실천주의에 보인 다른 접근도 소개하고 있는데, 음악이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음악교육은 절대적이며 고정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야 함을 언급한다(Mark & Madura, 2014, p. 52). 이 교재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음악교육철학이 존재할 수 있을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해당 장을 마감한다.

2) 접근 방법

(1) 서술 특징

이 교재는 음악교육 철학에 대한 사항을 “현 시대에서의 지적 경향들”(intellectual currents in the contemporary era)이라는 장에서 다룬다. 그런데 이 장은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포괄한다. 두 분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두 가지를 하나의 장에서 묶어 다루고 있다. 미적 교육의 철학과 인지심리학이 결합하여 1950년대에 음악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었다고 보며, 이 두 분야의 시너지가 교육과정의 관철에 튼튼한 논거로 활용됨을 내세운다.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이 교재의 서술은 외형적으로 시대 순을 따르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주장에 이어 미국에서 음악교육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던 때의 상황, 그리고 이후 20세기 중반과 후반을 차례로 열거한다. 하지만 큰 줄기는 앞에서 밝혔듯이 공리적 입장의 음악교육과 미학적 입장의 음악교육, 그리고 실천적 입장의 음악교육이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미학적 음악교육이 더 부각되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무엇보다 전통적 우위를 점하던 공리적 입장이 미학적 입장으로 넘어갔다는 대목에서 그러하다.

음악교육철학을 다루는 이 문헌의 입장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 관련 역사의 소개이다. 그 역사는 비록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지만 실제에서는 미국 음악교육의 역사에 투영된 논의이다. 이를테면 학교 음악교과가 처음으로 도입될 때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1950년대의 교육 연감인 『음악교육에서의 기본 개념들』(Henry, 1958)에 나타난 근원적 질문들과 그것을 이어받은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그 교육 연감에서는 실용주의(pp. 30-61), 실제적 철학(pp. 62-87), 사회학적 접근(pp. 88-121) 등을 다루고 있어서 음악교육의 미학적 입장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이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을 표방하는 1970년대 리머 저술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또한 레오나드의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초판 1959)을 언급하고, 나아가 엘리엇의 관련 저서를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요 문헌 비평의 형태를 취한다. 해당 장의 제목은 음악교육철학(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으나, 서술자의 입장에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자체의 구별된 철학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시사점

이 교재는 음악교육철학의 큰 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사회화를 우선하는 공리적 입장에 관해서나 미적 향유를 내세우는 미적 교육 또는 행위를 내세우는 실천적 의미의 철학적 원리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서술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철학과 관련된

것이지만 설명에 나타나는 실제 사항은 역사적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육론 교재에서 철학적 사항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음악교육론 교재는 음악교육이라는 교육현상을 총체적으로 엮어 제시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음악교육론 교재에서 철학적 사항이 겹돌지 않게 하려면, 레오나드와 하우스(R. W. House)의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재 전체에서 논의되는 사항들, 말하자면 교육과정, 교사교육, 평가 등과 음악교육철학이 원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음악교육론이라는 개괄적인 책에서 이 부분을 완성도 있게 제시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망라하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 교재가 철학적 사항을 역사적 추이의 소개로 갈음했을 수 있다.

IV. 종합적 조망

음악교육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음악교육론 교재는 대개 음악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망라함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열린 관점에서 음악교육을 안내하든지, 아니면 특정 관점을 부각하여 현장의 음악교육을 견인하든지, 또는 논쟁의 중립적 관점에서 단순한 서술자의 역할을 하든지, 각 교재는 해당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점검은 어떠한 형태로든 음악교육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에 대한 체계적 접근조차 없는 것을 철학이라고 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음악교육론 성격의 교재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다. 이것은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음악교육을 안내하는 문헌의 일차적 과업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각 문헌의 서술 방식은 매우 다르며, 심지어 그 내용에 유사한 면이 거의 없다. 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books in terms of music education philosophy

Title	Main direction	Explanation type	Suggestion
<i>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i>	▷ Aesthetic education ▷ Symbolic experience	• Essay-type explanation	- Reflection of the philosophical topics in the American society - Focused on school music education

Title	Main direction	Explanation type	Suggestion
<i>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i>	▷ Rationalism ▷ Empiricism ▷ Pragmatism	• Introducing to general philosophical directions • Distinguishing aesthetic foundations	- Applying to music educational praxis - Absence of music educational philosophy for its own sake
<i>Contemporary Music Education</i>	▷ A Utilitarian view of music education ▷ The shift a utilitarian belief to an aesthetic philosophy ▷ The emergence of a praxial philosophy	• Historically arranged statement	- Leaving out practical guide - Combination philosophical approaches to American music education

이와 같이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에서는 하나의 논술 형태로 당대의 철학적 이슈들을 학교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 주요 방향으로 미적 교육과 상징적 경험을 내세운다. 『음악교육의 기초』에서는 일반적 철학의 논제들을 음악교육 현장에 접목시켜 소개하되 미학적 기초들은 철학적 기초들과 분리한다. 그래서 그 주요 경향이 합리론, 경험론, 실용주의로 나타난다. 『현대 음악교육』에서는 시대 순으로 음악교육철학의 변화를 열거하고 있다. 그 흐름을 보면 음악교육의 공리적 관점이 먼저 제시되고, 이어서 미적 철학으로의 전환이 언급되며, 이후 실천적 철학의 대두가 소개된다. 음악교육철학의 주요 경향이 이렇게 서술된 것은 그것을 미국 음악교육의 역사와 결부시킨 결과이다.

각 문헌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적 교육과 상징적 경험을 내세우는 첫째 문헌은 미국 교육학계의 철학적 이슈 중에서 예술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학교 음악교육의 명분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를 보인다. 합리론, 경험론, 실용주의 등 일반적 철학 담론들을 다루는 둘째 문헌은 그러한 원론적 고려들을 음악교육 활동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방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철학이 포괄하는 외연을 학교 음악교육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리적, 미적, 실천적 철학으로의 변이를 소개하는 셋째 문헌은 미국 음악교육의 역사에 나타난 당위성의 흐름을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이 문헌의 뒷부분에서 소개하는 음악교육의 방법론적 사항이 철학적 근거와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음악교육 자체의 건

실한 구조를 제시하는 교재는 첫째 문헌이다. 둘째 문헌은 음악교육에 근접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학적 사항을 음악교육 활동에 녹여내는 방안을 성실히 선보인다. 마지막 문헌은 근거를 설명하거나 그것에 따른 음악교육의 수행 방안에 대한 안내보다, 다양한 현상을 시대 흐름에 따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교재 제목에도 기초(foundation)나 원리(princip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만약 세 교재를 함께 활용하지 않고 각각 따로 참고한다면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세 교재의 접근 양상을 보면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다. 앞에서 조명하였듯이 『음악교육의 기초』는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철학’의 담론으로 음악교육을 설명한다. 그러나 음악의 철학 또는 음악교육의 철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음악교육철학에게 기대되는 음악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약해지고, 그 대신 철학적 논의들을 활용하여 음악교육의 방법 탐구로 나아간다. 이에 비하여 『현대 음악교육』은 음악교육에 근거를 주기 위한 철학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소위 ‘철학’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음악 및 음악교육을 넘어서 원론적 차원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모호하여 음악교육의 대외적 명분을 충분히 내세우지는 못한다. 이 두 문헌과 다르게,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들』은 음악교육을 보는 중심 관점을 미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 학교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 문헌에 나타난 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의 전체 그림을 그리게 하는 자체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 문헌의 서술 방식과 내용이 보이는 차별화가 없지 않으나, 실제로는 음악교육의 한쪽 경향만을 추구하거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음악교육 현장의 실천적 입장에 기여하는 데는 제한이 있거나, 단순 서술자의 입장에 머물러서 전체 음악교육의 유기적 결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의 음악교육론 교재가 전하는 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의 명분 축적을 위한 일반적 노력의 현실을 또한 그대로 보여준다. 크게 보면 실용주의 관점의 미적 교육이 출발점을 이루고, 합리론·경험론·실용주의라는 철학적 경향을 음악교육에 적용해보는 간학문적 접근이 방법적 연결고리를 만들며, 나아가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과 음악적 행위를 중시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대비와 조합이 현 지점을 형성한다.

V. 나오며

철학 분야의 전통적 논의들을 음악교육에 대입해보려는 시도는 거부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음악교육의 고유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철학의 적용은 음악교육 자체의

철학을 형성시키는 힘이 약하다. 이것은 음악교육론 교재들의 해당 장에 사용된 단어 조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라고 할 때는 음악교육과 철학을 연계시키는 모든 사항을 열린 상태에서 포괄할 수 있으나, ‘음악교육철학’이라고 하면 그러한 주장의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이후 전개되는 음악교육의 수행 사항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론 교재에서 그러한 사항을 철학적 근거라고 명명하면서 통합적으로 아우르게 되면 여러 견해들이 병렬로 나타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반면 음악교육철학이라고 내세우는 주장은 각각 하나의 철학이 되기 때문에 나름의 완결성, 즉 철학적 체제를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음악교육론 교재가 소개자의 입장에 머물더라도 중심적인 것을 내세워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 나열의 경우에 머물 경우 그 문헌은 정체성 있는 음악교육을 주장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어로 된 음악교육론 교재에서 음악교육철학을 다룰 때 더욱 예민하게 나타난다. 관사(부정관사, 정관사)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음악교육 학계에 소개되는 음악교육철학을 ‘하나의(a, one)’ 음악교육철학이라고 하여야 할지, 다 묶어서 음악교육철학(들)이라고 하여야 할지 판단해볼 문제이다. 보다 중립적 용어인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들’(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usic education)을 떠올려보는 이유이다.

나아가 미국의 음악교육론에서 흔히 소개하는 미적 교육의 문제도 깊고 넘어갈만하다. 일반적 철학 사조를 음악교육에 끌어들이는 것의 경직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듀이, 랭거, 마이어 등의 사상을 미적 교육으로 집약하는 것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미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미학이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았고, 계몽주의 이후 관념론을 거쳐 가치 지향적 교육에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관념 추구의 인식론이 생략된 상태에서 실용주의나 상징주의 등이 철학적으로 미적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온전히 말해주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 미적 인식에서 윤리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음악교육론에 제시된 음악교육철학은 이 학문 분야의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보다는 북미 음악교육의 주요 관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음악교육철학’(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philosophy)이라는 용어가 자유롭게 쓰일 정도로 이 분야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들이 북미권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그것들이 독자적 체계를 갖춘 철학으로서 인간 존재와 음악교육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음악교사 및 음악교육학자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 문헌에 나타난 음악교육철학만을 따를 수는 없다. 또한 음악교육학계는 기존의 음악교육철학이 음악교육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과제를 완수했다고 여겨서도 안 될 일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토양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답을 제시한 이 문헌들처럼, 한국에서도 현 시대의 문화 현상을 고려한 질문에 따라 나름의 의미 있는 음악교육철학이 다원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근래 회자되고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에서도 그 당위성 확립을 위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Kim & Kwak, 2019, p. 23). 음악교육학계는 철학적 근거에 대한 기존 견해를 소개하거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의 긍정적 측면을 독려하고, 아울러 그 견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의 관점에서 음악교육 현장에 실천적으로 활용하게 하면서, 나아가 보다 보편적이고 정교한 음악교육철학의 개척을 건언하여야 한다.

References

- Abel-Struth, S. (1985). *Grundriß der Musikpädagogik*. Mainz: Schott.
- Ables, H. F., Hoffer C. R., & Klotman, R. H. (1995). *Foundation of music education* (2nd ed.). Belmont: Thomson Schirmer.
- Bowman, W. D. (1998).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wey, J. (1958). *Art as experience* (14th impression). New York: Capricorn Books.
- Elliot, D. J., & Silverman, M. (2015). *Music matters*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m, H. J. (1993). "What is pedagogy of music?" *Music and Korea*, 6, 140-160.
- Henry, N. B. (Ed.) (1958). *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 D. C. (2013). Recent ideas of philosophical thinking for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3), 301-328.
- Kim, K. H., & Kwak, D. J. (2019). Contextualism-Universalism controversy inherent to the Purposes of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 possibility for

- "multi-musica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1-28.
- Kim, M. S. (2001). A study on music education research. *Music Theory Forum(Yonsei Music Research)*, 8, 23-52.
- Kim, Y. H. (2002). Contemporary trends in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19, 1-29.
- Langer, S. K. (1945). *Philosophy in a new ke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Lee, Y. K. (1993). Study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aesthetic sensitivity in music education. *Music and Korea*, 6, 278-304.
- Leonhard, C., & House, R. W. (1972).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Mark, M., & Madura, P. (2014).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4th ed.). Belmont: Thomson Schirmer.
- Min, K. H. (2009). Discussion to promote understanding on music pedagogic research: Centering around cases of Germany, USA and Korea. *Applied Music Research*, 2, 1-26.
- Ministry of Education (2019). *Criteria of teacher's license for kindergarten, prim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No. 2019-182(2019.5.27.)
- Plato (1937). *The republic*. Translated by P. Shore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mall, C. (1977). *Music, society, education*. New York: Schirmer.
- Suk, M. J. (2004). The alternative approach of music education inquiry in Korea through current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 91-128.
- Sung, K. H. (2002). Music education paradigms in the 21th century. *Music Education Technology*, 1, 1-8.